

“수도권 상공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임무 수행해 달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대비태세 점검
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부대 장병 격려
패트리엇 운용 현황 확인·안전 당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8일 3미사일방어 여단 예하 수도권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손 총장이 찾은 이 부대는 패트리엇을 운용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손 총장은 먼저 패트리엇 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동계작전 대비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손 총장은 “강설·강풍 등 급변하는 기상 에 철저히 대비하는 가운데 빈틈없는 경계·방공태세를 유지해 어떠한 위협에도 수도권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총장은 패트리엇 운용 현장으로 이동해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영공



18일 손석락(맨 앞) 공군참모총장이 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수도권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작전현황을 보고 받은 뒤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공군 제공

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손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수도권 상공의 영공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무 기자

‘42,195페이지’ 독서 마라톤 완주했죠

공군항공지원작전단, 완주증 수여식
독서노트 1000페이지를 1km로 환산
폴코스 완주 2명 포함 61명 기록 달성

공군항공지원작전단(항지단)은 17일 단본부에서 ‘제4회 항공지원작전단 독서 마라톤 대회’ 완주증 수여식을 열었다. 항지단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해 책읽는 병영문화 정착과 자기 계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대회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한 독서 노트 1000페이지를 1km로 환산, 희망코스별(3·5·10·20km, 폴코스)로 독서노트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장병·군무원이 참여해 총 61명이 완주했다. 특히 최장거리 폴코스 완주자 2명이 탄생해 부대원들의 높은 독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주자 전원에게는 원주시평생교육원에서 발행한 ‘제13회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 마라톤 대회’ 완주증과 완주코스별 기념품이 수여됐다. 항지단도 부대 차원에서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했다. 부대 자체 심의를 통해 신분별 다독자, 최우수·우수 노트 제출자에게 별도의 포상을 줬다. 행사를 주관한 고월석(중령) 인사운영처장은 “대회를 통해 장병들이 독서를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km를 완주한 김민영 병장은 “군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독서 마라톤에 참여했다”며 “독서의 즐거움과 마음의 양식을 얻었고 전역 후에도 군대에서 얻은 독서 습관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무 기자

‘책 읽는 공군 응원합니다’ 전자책 구독권 기증

교보문고, 병사들 자기 계발 지원
1개월 무제한 이용권 2만 개 제공

공군은 18일 “교보문고가 공군 병사들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책 서비스(sam) 1개월 무제한 구독권’ 2만 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전자책 서비스는 2013년 출시된 교보문고의 회원제 전자책 구독 서비스다. 1개월 무제한 구독권은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논문 등 총 81만 건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군은 병사들에게 무제한 이용권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용권을 받은 병사들은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교보문고 ‘교보eBook’ 앱에 접속한 뒤, 이용권 핀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1개월간 전자책, 오디오북 등

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군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장병들의 모바일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병들이 복무 기간 중에도 자기 계발과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이번 기증은 공군과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병영 내 디지털 독서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분야 전반으로 디지털 독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공군본부 정인식(대령) 인재개발교육과장은 “디지털 독서를 통해 자기 계발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군이 지향하는 창의적·미래지향적 인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공군항공지원작전단이 개최한 제4회 독서 마라톤 완주증 수여식에서 완주자들이 완주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박경호 상사

국민 지키는 또 다른 헌신...헌혈증 1100장 기부

공군11전비 군사경찰대대
대구 파티마병원에 전달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 군사경찰대대 장병들이 헌혈증 1100장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며 공군의 핵심가치인 ‘헌신’을 실천했다. 11전비는 18일 예하 군사경찰대대 장병들이 1년 10개월간 모은 헌혈증 1100장을 대구 파티마병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혈증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사경찰대대는 그동안 헌혈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해부터 헌혈 동참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전달된 헌혈증은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기부에 참여한 대대 으뜸병사 정우성 상병은 “헌혈증 기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헌혈증 기부에 참여할 것이며, 필요한 환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만철(중령) 군사경찰대대장은 “공군의 핵심 가치인 ‘헌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헌혈증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증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